Korea-US
Opinion Leaders Seminar
출장보고서

출장기간: 2010 7. 25 ~ 30
출 장 지: 美 Washington DC

목 차

- I. 개 요
- II. 일정별 주요내용

I. 출장 개요

1. 출장자 : 채욱
2. 출장 기간 : 2009년 7월 25일 ~30일
3. 출장지 : 미국 워싱턴 DC, The Mayflower Renaissance Hotel
4. 출장목적: 제 9주년 Opinion Leaders Seminar 참석, 피터슨경제연구소 세미나

II. 출장 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
7월 25일	워싱턴 D.C.	이동, 워싱턴 도착
7월 26 ~ 7월 28일	워싱턴 D.C.(KEI 사무소)	전야제 행사 및 세미나 참석
7월 29일	서울	이동, 워싱턴 출발
7월 30일	서울	서울 도착

III. 활동 내용

주요 활동 개요

- 제 9차 Opinion Leaders Seminar에는 40여명의 양국의 산-관-학 여론주도층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, 주요 토론 주제로 ▲ 한-미 동맹 ▲천안함 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 ▲ 새로운 글로벌 경제금융체제의 중간자로서 한국의 역할 및 한-미 FTA 등이 다루어 졌음.

1. 7월 26일 (월요일)

OLS Dinner Reception @ Smith and Wollensky Steak House

- 한·미 OLS 참석자들이 27일 세미나에 앞서 칵테일과 저녁을 함께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OLS 세미나 의제에 관한 사전 회의 및 진행에 관한 협의 시간을 가짐.

2. 7월 27일 (화요일)

□ Session 1 : The U.S.-ROK Alliance

- 모든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은 견고하다고 의견을 함께 했으며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(OPCON Transfer)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남한의 방위 체제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동의함.
- 한국 측 발표자는 미국과 양자, 지역적,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동맹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집단적인 전쟁 억제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, 6자회담 등 다자적인 제도설계는 미래의 리더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함.
-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위협(테러, 전염병, 기후변화, 자연재해, 에너지문제 등)을 다루는데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 예를 들면, 3자(韓-美-中, 韓-美-日), 다자간* 협력 및 조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. (*아세안지역안보포럼(ARF), ASEAN, 동북아 협력대화(NEACD) 등)
- 미국 측 발표자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측의 정부채널만이 아니라 민간외교를 활성화하여 전략적 동맹을 위한 비전을 공유, 발전시키자는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함. (2+2 대화채널 제도화, 전시작전권의 성공적 반환, 권력승계 등 북한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 관리 등)
- 특히, 한미관계와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기존의 냉전적 시각을 보다 유연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. (Stephen Bosworth, 前 駐美 대사)
- 韓美 FTA도 단순히 교역 및 투자확대 등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양국 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보다 포괄적·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

다고 설명함.

□ Session 2: North Korea

- 한국 측 발표자는 북핵, 천안함 등 북한의 위협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가 필요하며 북한의 부분적 도발에 대해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부적절하며,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위기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함.
- 미국 측 참가자는 김정일의 건강상태, 권력승계 문제와 맞물려 최근 북한의 도발(천안함)은 과거의 도발과는 의미가 다른 사건이며 앞으로 몇 년간의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함.
-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간 교착상태 지속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정치적 역학관계*를 고려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함. (* 강경파 내부의 진보/보수 성향, 남한정치권내 통일에 대한 상징적 의미 등 활용)
-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6자회담 참여국과 미국의 역할 정립, 북한에 대한 중국의 조정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김정일 정권은 앞으로 중국에 더욱 의지(China dependent mode)하는 전략을 갖고 갈 것이나 중국이 어느 선까지 북한에 개입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언급됨.
- 일부 美측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해 세대별 신뢰도 차이가 큰 원인이 무엇인지, 同 사태가 지방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질의하면서 관심을 표명함.
- 한국 측 참가자는 남북 교역규모(09년 약 16.8억불), 안정적인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천안함 사건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, 美·日 등 국제사회의 공조, 우리나라의 탄탄한 펀더멘탈 등도 위기 확산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함.

3. 7월 28일 (수요일)

□ Session 3: Korea as a Middle Power and Its Role in the New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Architecture

-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긍정적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, 한국경제는 올해 빠른 회복 성장을 보이고 있음. 이러한 시점에서 더블딥 불경기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블딥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부 참가자는 설명함.
- 한국은 불확실한 세계경제 전망과 경제의 이변들로 인하여 이번 11월 서울 G-20 summit의 의장국으로 회담을 주관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언급됨. 이번 G-20 서울 summit을 통해 향후 세계경제정책의 프레임*이 세워져야한다고 설명됨. (*Strong, sustainable, balanced growth)
- 미국 측 참가자는 이번 서울 G-20 summit의 성공적인 개최와 결과를 위해서 1) 글로벌 금융의 불균형 문제, 2)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국제 금융 규제 시스템 개혁안을 모색하여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.
- 한국의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경험과 또한 최근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은 G-20 의장국으로서 충분한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으나 서울 정상회담 이후에 다른 개도국들과 (G-8이 아닌 나라)함께 세계 경제대국의 중심에서 열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언급됨.
- 미국 측 참석자는 KORUS FTA 미 의회 비준이 올해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아직도 풀어야 할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함.
- KORUS FTA의 성공적인 비준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FTA 의회비준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(unswerving commitment)가

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.

- 특히, 낸시 펠로시(Nancy Pelosi)는 민주당원들을 보호하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FTA비준을 반대하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의 의지와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FTA 비준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임.
- 미국 측 참가자는 한국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나라와의 관계가 동일하지는 않으며, 협상과정에서 반대논리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함.(보호주의에는 반대)
- 한국 측 발표자는 글로벌 위기 이후에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G-20등 글로벌 협력을 포함한 미래에 대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방향 아래와 같이 제시함.
- 한국은 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강화된 경제체질, 수출 상품 및 시장의 다각화, 효과적 정책결정* 등을 통해 2008년 가을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.
-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의 경제 대비책으로는 새로운 성장엔진 마련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
-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G-20 정상회의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,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등 한국의 ODA 정책, 활발하게 추진 중인 FTA 정책에 대해 소개함.
- 한국 측 토론자는 韓美 FTA의 특징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협상결과가 결코 美측에 불리하지 않은 Win-Win의 협정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최근 '조정(adjustment)'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의 FTA 협상내용을 소개하면서 협상과정에서 美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을 역설함.
- 또한, 자동차 관련 최초의 Snap-back 규정, 미국 측에 유리한 자동차 양허

수준, 韓美 자동차시장 분석을 통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점유 과대평가를 지적하였음.

- 그밖에 G-20 등에서 'middle power'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며, G-20에서 진전이 더딘 DDA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됨.